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The Influence of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s Loneliness and Anxiety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보가
경북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임지영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Professor : Choi, Bo-Ga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Lim, Ji-You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s loneliness and anxiety. The 937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and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of middle school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Boys were more focused on overt victimization than girls. Girls received more prosocial behavior than boys.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al victimization. 2) As the grade were higher, the tendency of relational and overt victimization had been decreased. As the grade higher, the tendency of prosocial behavior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3) The influence of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s loneliness had difference among subtypes of peer victimization. 4) The influence of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 anxiety had difference among subtypes of peer victimization.

I. 서론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또래들에 의한 부정적인 행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1970년대에 연

구(Olweus, 1977, 1978, 1979)가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대 초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또래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 그칠 뿐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대략 20-35%의 청소년이 또래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1996;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1996; 홍재선, 1996). 이는 평가방법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구대상의 15%가 다른 아동을 괴롭히거나 자신이 또래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한 Olweus(1993)의 연구나 다른 연구들(Boulton & Underwood, 1992; Perry, Kusel & Perry, 1988)보다 수치가 높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은 명백한 괴롭힘(overt victimization)과 관계적 괴롭힘(relational victimization)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명백한 괴롭힘이란 직접적으로 신체적·언어적 방법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때리기, 차기, 밀기, 욕하기, 별명 부르기, 말로 위협하기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관계적 괴롭힘은 고의로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쁜 소문 퍼뜨리기,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여러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더 많이 관여한다는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Boulton & Underwood, 1992; Cowen & Underwood, 1995; Crick & Grotpeter, 1995; Olweus, 1986; Olweus, 1994; 정우영, 1991; 홍재선, 1996). 그러나 또래괴롭힘을 하위유형별로 나누어 성차를 비교한 연구들은 신체적인 괴롭힘은 남아가, 언어적인 괴롭힘은 여아가 더 많이 당하였다고 성차를 주장하는 연구(Slee, 1994)와 직접적이고 명백한 괴롭힘에 있어서는 남아가 더 많이 경험하지만 간접적인 괴롭힘이나 관계적 괴롭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연구들(Crick & Grotpeter, 1996; Olweus, 1984)로 나뉘고 있다.

그동안 또래괴롭힘의 개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Brown & Elliot, 1965; Olweus, 1989)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감정 이해하기, 괴롭힘 당하는 아동을 도와주기 또는 소외당하는 아동과 함께 놀아주기 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만을 포함하였다(Crick & Grotpeter, 1996, 재인용). 어떤 아동들은 또래집단내에서 직접 괴롭힘은 당하지 않더라도 또래들로부터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약간 무시

당하는 등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또는 또래와 어울리고자 할 때 또래들이 고의적은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적·정서적 지원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같이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 경험을 좀 더 철저하고 균형되게 평가하고,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것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이 높고, 여아보다 남아가 피해 경험을 많이 보고하고 있지만(정우혜, 1991; 이영미, 1989; 홍재선, 1996), 또래괴롭힘의 피해경험을 하위유형별로 나누어 성차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또래괴롭힘의 하위유형을 명백한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누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빈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Olweus, 1993; Smith & Whitney, 1993)들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 또래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Slee(1994)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장 빈번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다가 중학교 1, 2학년인 14-15세 경에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발달적 추이와 심각성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도 전반적인 또래괴롭힘 빈도에 따른 결과일 뿐 또래괴롭힘의 하위유형별 발달과정은 알 수 없다.

게다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중,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피해 빈도를 연구하였을 뿐 초등학생에서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또래괴롭힘의 피해 추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의 하위유형별 발달적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들은 다양한 적응문제에 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또래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Boulton & Smith, 1994; Olweus, 1993), 더 걱정스러워하며(Olweus, 1993), 학교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덜 행복해했으며(Boulton & Underwood, 1992), 등교 거부도 있었다(Kochenderfer & Ladd, 1996).

다양한 사회·정서적 부적응 중에서도 외로움과 불안은 또래집단내에서 고통받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중요한 지표로 제시되어 왔다(Asher & Wheeler, 1985; Hymel & Franke, 1985). 외로움은 특정 형태의 관계 부족으로 나타나며 친밀한 애착관계나 의미있는 우정,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으로 생기는 감정이다(정영인, 1988). 초기의 연구에서는 주로 또래관계와 외로움을 관련지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아동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도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고 부정적인 또래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Boulton & Underwood, 1992; Perry, Kusel & Perry, 1988).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 역시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배척되는 것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들(Boulton & Underwood, 1992; Crick & Grotpeter, 1996;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93)에 근거해 볼 때,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각하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불안은 유기체에 긴장을 수반하는 정서 상태로써 정신적·정서적 문제나 정신건강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최우영, 1994). 아동의 또래관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은 검사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명확히 측정되지 못

하다가 Hymel과 Franke(1985)가 사회적 불안과 회피에 관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면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관계내에서 우울, 불쾌, 두려움, 불안 등을 느끼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공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공공연한 또래거부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Slee, 1994). 반면에 사회적 회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며, 또래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는 부적절한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래관계와 불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또래괴롭힘과 불안에 관한 연구들(Crick & Grotpeter, 1996; DeRois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Slee, 1994)이 행해졌으며, 이들 연구에 의하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 대부분이 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Patterson, Kupersmidt 그리고 Grieseler(1990)도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부정적인 감정 중 외로움과 불안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아동의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는 개입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들의 또래괴롭힘 특성을 밝히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사회적응을 방해하는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그 유형별로 외로움과 불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진단함에 있어서나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대구시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외로움, 불안의 개념이 복잡하므로 단일화된 검사지로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래 괴롭

힘에 있어서 또래, 교사, 부모와 같은 다양한 보고자의 평가나 직접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아동의 성별과 학년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았고, 외로움과 불안 수준에 있어 또래괴롭힘 이외에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학년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는가?
3.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가?
4.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 4-1.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 4-2.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시내 5개교 초등학교 3-6학년 616명과 2개교 중학생 1, 2학년 321명을 편의 표집한 남, 녀 각 480명, 457명씩 총 93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선정한 것은 공격적인 습관이 고정되는 시기가 아동기로서 성인기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공격으로 인해 괴롭힘을 받는 것이 확고해지는 시기이며 (Perry, Kusel & Perry; 1988), 또래괴롭힘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에서 질문지 내용과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이 시기가 수험기간이기 때문에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외의 요인들이

정서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괴롭힘 척도, 외로움 척도, 불안 척도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이다.

1) 또래괴롭힘 척도

또래관계에서 아동이 당하는 또래괴롭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6)의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했다.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에 관한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적당하지 않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14문항만으로 구성하였다. Likert식 5점등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을 많이 당한 것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각 문항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전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수 2명과 아동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 3명에 의한 안면타당도를 거쳐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33.3%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관계적 괴롭힘'이라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8.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명백한 괴롭힘'으로 명명하였으며, 세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8.7%를 설명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요인별로 각각 .76, .83, .84였다.

2) 외로움 척도

Asher와 Wheeler(1985)의 외로움 척도를 정영인(1988)이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에서의 외로움을 평가하는 16문항과

아동의 취미나 선호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8문항을 포함해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취미나 선호활동을 평가하는 항목은 아동들의 감정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기 위한 항목이므로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이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90이었다.

3) 불안 척도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과 회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nke와 Hymel(1984, 1985)의 척도를 번안한 최우영의 척도(1994)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은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로 각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예비조사결과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각각 1개씩 제외시켜 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이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31.5%를 설명하여 '사회적 불안'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22.1%를 설명하여 '사회적 회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요인별로 .75, .76이었다.

3. 절차

본 조사에 앞서 1997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시내 초등학교 1-6학년과 재학중인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대구시내 초

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1,000명을 편의 표집하여 1997년 9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배부 및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957부였고,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 부실 기재한 자료를 제외한 총 93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는 각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 사후검증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한 결과, 성별의 주효과($F=49.4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명백한 괴롭힘($F=49.30, P<.001$)과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함($F=41.70, P<.001$)에서만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하위유형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인	남(n=480)		여(n=457)	
	m	sd	m	sd
관계적 괴롭힘	1.60	.70	1.68	.76
명백한 괴롭힘	1.62	.80	1.31	.53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	3.06	.92	2.67	.92

〈표 1〉에서 보듯이, 명백한 괴롭힘은 남아(m=1.62)가 여아(m=1.31)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남아(m=3.06)가 여아(m=2.67)보다 또래들로부터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한 결과 학년의 주효과($F=17.7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계적 괴롭힘($F=29.10$, $P<.001$), 명백한 괴롭힘($F=49.05$, $P<.001$)에서만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법을 사용하여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또래괴롭힘의 학년별 Scheffé 검증

	학 년(명)	m(sd)	Scheffé	F값
관계적 괴롭힘	초등학교 3, 4학년(306)	1.85(.80)	a	29.10***
	초등학교 5, 6학년(310)	1.67(.75)	b	
	중 학교 1, 2학년(321)	1.41(.57)	c	
명백한 괴롭힘	초등학교 3, 4학년(306)	1.74(.81)	a	49.05***
	초등학교 5, 6학년(310)	1.45(.70)	b	
	중 학교 1, 2학년(321)	1.22(.43)	c	

* $P<.05$, ** $P<.01$, *** $P<.001$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관계적 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 초등학교 3, 4학년($X=1.85$), 초등학교 5, 6학년($X=1.67$), 중학교 1, 2학년($X=1.41$)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감소하였다. 명백한 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서도 초등학교 3, 4학년($X=1.74$), 초등학교 5, 6학년($X=1.45$), 중학교 1, 2학년($X=1.22$)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명백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감소하였다.

3.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하여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을 독립변수로 하고 외로움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또래괴롭힘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B	β
관계적 괴롭힘	.38	.41***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	.28	.38***
명백한 괴롭힘	.13	.14***
상수		.35
R ²		.50
F		305.06***

* $P<.05$, ** $P<.01$, *** $P<.001$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관계적 괴롭힘(34%),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14%), 명백한 괴롭힘(2%)으로 외로움의 총 50%를 설명하였다.

4.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1)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명백한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아동의 사회적 불안에

1) 각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은 .55***, 명백한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은 .21***, 관계상의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은 .25***의 상관이 있었다 (**p<.001).

〈표 4〉 또래괴롭힘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B	β
관계적 괴롭힘	.36	.29***
명백한 괴롭힘	.17	.13***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	.07	.07***
상수	1.22	
R ²	.165	
F	60.97***	

*P<.05, **P<.01, ***P<.001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관계적 괴롭힘(15%), 명백한 괴롭힘(1%),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05%)으로 사회적 불안의 총 16.5%를 설명해 준다.

2)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명백한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회피를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또래괴롭힘이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

	B	β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	.35	.38***
명백한 괴롭힘	.14	.11***
관계적 괴롭힘	.11	.09***
상수	.79	
R ²	.21	
F	80.81***	

*P<.05, **P<.01, ***P<.001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18%), 명백한 괴롭힘(2%), 관계적 괴롭힘(1%)으로 사회적 회피의 총 21%를 설명해준다.

IV. 논의 및 결론

1.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

아동의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서는 명백한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관계적 괴롭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Crick과 Grotpeter(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남아가 신체적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Rigby와 Slee(1991)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치기, 밀기, 언어적 위협과 같은 명백하게 공격적인 행동은 남아들의 중요한 사회적 목적 달성에 위협을 주므로 남아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Cowen & Underwood, 1995; Olweus, 1986; Slee, 1994; Smith & Sharp, 1994; 정우영, 1991)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데 있어서는 남아(M=3.06)가 여아(M=2.67)보다 또래들로부터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보다 여아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받는다는 Crick과 Grotpeter(1996)의 연구와 권연희(199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을 제공받는데 있어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는 연구들(O'Bryant & Brophy, 1976; Shaffer, 1988; Zabotany, Hartman, Garland & Vinciguerra, 1985)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가 남·녀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아니면 남아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권연희, 1995, 재인용).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여아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배려하기, 걱정하기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아들이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계적 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관계적 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Crick과 Grotpeter(1996)와 Olweus(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여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주로 관계문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따돌리기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위협하는 공격행동이 효과적(Cowen & Underwood, 1995; Olweus, 1986)이어서 명백한 괴롭힘보다는 관계적 괴롭힘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남아가 명백한 괴롭힘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는 또래괴롭힘을 많이 경험하지만 관계적 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학년에 따른 또래괴롭힘

학년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데 있어서는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친사회적 행동을 받는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감소한다는 연구들(Olweus, 1993; Smith & Withney, 1990)과 일치한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또래로부터 공격을 받는 피해점수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한다는 이영미(198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Slee(199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점점 감소하다가 14-15세에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Slee의 연구에서는 동일 연령의 또래들에 의한 괴롭힘뿐만 아니라 상급생으로부터 당한 괴롭힘도 포함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괴롭힘이 상급생에 의한 것이므로 저학년이 당하는 괴롭힘에 있어 상급생의 영향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급생도 줄기 때문에 괴롭힘이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다시 상급생의 괴롭힘이 포함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급생에 의한 괴롭힘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데 있어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학년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제공받는데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Crick과 Grotpeter(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은 일정수준 이상의 인지능력이 요구되며, 유아기 이후부터 현저하게 발달하고, 아동이 성장하면서 점점 경쟁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10세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된다(송명자, 1995; 이옥형, 1997)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10세부터 15세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 친사회적 행동에서 안정적인 경향성을 보일 연령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한, 명백한 괴롭힘 순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들이 학교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들(Boulton & Underwood, 1992;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93)과 일치한다. 그리고 관계적 괴롭힘이 외로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명백한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도 외로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Crick과 Grotpeter(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외로움이 이전까지 이룩해 놓았던 사회적 관계가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손실되었을 때 생긴다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또래와의 관계에 해를 미치거나 관계를 중단시키려는 관계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4.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1)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한 순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Crick과 Grotpeter(1996)의 연구에서 관계적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이 불안해하고, 자살 등의 행동적 위협에 처해 있으며 또래배척을 당한다는 연구들(Cowen, Pederson, Babigian & Trost, 197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함을 느끼지 못하는 아동들이 사회적 불안을 많이 나타낸다(Franke & Hymel, 1985)는 점에서 볼 때 관계적 괴롭힘이나 명백한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받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스스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불안이 외부세계에서 오는 실제적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관계적 괴롭힘이나 명백한 괴롭힘이 훨씬 더 실제적인 위협이 되어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 순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Crick과 Grotpeter(1996)의 연구에서 명백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관계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사회적 회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또래괴롭힘이 학교회피를 많이 설명한다는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와 또래괴롭힘이 사회적 회피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Slee(1994)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는 사회적 회피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며 또래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또래들과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또래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회적 회피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외로움(50%)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사회적 불안(16.5%)이나 사회적 회피(21%)에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가 또래관계내에서 기인하는 불안을 보는 한 측정도구내의 하위유형이므로 설명력이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즉,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 모두를 포함하는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는 외로움과 사회적 불안 및 사회적 회피의 설명력의 차이는 측정도구상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당했고,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들에게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받았다. 그리고 관계적 괴롭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다.

둘째, 학년에 따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관계적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감소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데 있어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다.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 명백한 괴롭힘 순으로 외로움의 총 50%를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관계적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백한 괴롭힘과 더불어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넷째,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의 불안(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 순으로 사회적 불안의 총 16.5%를 설명해 주었다. 사회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못함, 명백한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순으로 사회적 회피의 총 21%를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불안에 있어서 명백한 괴롭힘뿐만 아니라 관계적 괴롭힘이 미치는 영향이 간

과되어서는 안되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또래괴롭힘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괴롭힘의 유형을 포함하면서도 국내 아동에게 적절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그 심각성에 따라 아동을 분류할 수 있는 진단기준도 만들어져야 된다.

둘째,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의 정도만을 보았으나 또래괴롭힘의 지속기간이나 노출시기도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만을 설명하였으므로 또래괴롭힘으로 인한 부적응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로움과 불안의 사회·정서적 부적응 및 행동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또래괴롭힘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간의 복잡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또래관계에서 또래괴롭힘의 가해아/피해아 패턴이 확립되기 전에 연구대상을 확보하여 또래괴롭힘과 아동의 적응간의 관계를 중단적으로 평가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피해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나 상담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진단·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권연희(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3) 이영미(1989).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와 사회정서적 지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이옥형(1997). 아동발달. 집문당.
- 5)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정우혜(1991). 아동의 공격성 행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청소년 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울림.
- 8) 최우영(1994). 사회성측정지위에 따른 아동의 귀인유형과 사회적 부적응 감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1996).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 제 4차 청소년 정책 토론회.
- 10) 홍재선(1996). 學校暴力의 실태와 그 대책.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Asher, S. R., & Wheeler, V. A.(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12)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13)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zzo, L. D., & Trost, M. A.(1973). Long-term follow-up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38-446.
- 14) Cowen, E. L., & Underwood, M. K.(1995). sugar and spice and everything ni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15)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 16)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17) DeRosier, M. E.,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the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 1799-1813.
 - 18) Hymel, S., & Franke, S.(1985). Children's peer relations: Assessing self-perceptions. In B. Schneiders K. H. Rubin & J. E. Ledingham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pp.75-92). New York: Springer Verlag.
 - 19) Irene Whitney., & Peter K. Smith,(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al Research*, 35(1), 3-25.
 - 20)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21) Michael J. Boulton., & Peter K. smith,(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22) Olweus, D.(1977).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in adolescent boys: Two short-term longitudinal studies of ratings. *Child Development*, 48, 1301-13.
 - 23)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press(wiley).
 - 24) Olweus, D.(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75.
 - 25)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Gault(Eds.), *Disruptive behaviors in schools* (pp.57-76). New York: Wiley.
 - 26)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a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411-448). Hillsdale, N. J.: Erlbaum.
 - 27)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lackwell.
 - 28)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e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29)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30) Rigby K., & Slee, T. P.(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Form and Victim*.
 - 31)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32) Sonia sharp., & Peter K. smith(1994). *Tackling Bullying in your school: A practical handbook for teachers*. Routledge.